

한·미 FTA 체결대책
특별위원회 보고자료

이 자료는 2007년 7월 31일 간
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P 시 30분

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서비스 분야 국내보완대책

2007. 7. 31

재정경제부 법 무 부 문화관광부
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노 동 부
방송위원회

|| 목 차 ||

I.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개방분야.....	1
II. 서비스 개방의 영향 및 기대효과.....	2
1. 서비스 개방의 전반적인 효과.....	2
2. 분야별 영향.....	3
III. 서비스산업 보완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	5
1. 기본구조.....	5
2. 협상내용에 따른 보완대책.....	6
3. 국내서비스산업의 전반의 경쟁력 강화대책.....	10
첨부 :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.....	12

I. 한미 FTA 서비스부문 주요 개방분야

- ◇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 대신, 개방을 통해 경쟁력 제고가 필요한 분야는 단계적·부분적 개방
- 공교육·의료 및 보건서비스 등은 포괄적으로 유보하고, 지재권, 방송, 통신, 금융 등 선택적 분야를 단계적으로 개방

1]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

- 저작권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또는 저작물 발행 이후 70년으로 연장(협정발효 2년후)

2] 방송서비스 부분개방

- 방송채널사용사업자(PP : Program Provider)에 대한 간접투자 한도 확대(50% → 100%)
- 국내제작 영화 및 애니메이션에 대한 방송쿼터 완화

	현행	FTA 발효후
영 화	25%	20%
애니메이션	35%	30%

3]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기회 확대

- KT, SKT를 제외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간접투자를 공익성 심사를 거쳐 100%까지 허용(협정발효 2년이내)

4] 금융 및 법률·회계 등 전문직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

- (금융) 일정조건하에서 신금융서비스를 허용하고 보험 중개업 및 보험부수 서비스업 시장을 일부 개방
- (법률·회계) 미국 변호사·회계사 자격 소지자가 자격취득 국가의 법률, 회계 등에 대해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허용

II. 서비스 개방의 영향 및 기대효과

- ◇ 외국의 선진기술 도입 및 경쟁촉진 등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생산·고용 증가 전망
- 다만, 지적재산권 보호강화, 영화·애니메이션 쿼터 축소,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접투자 확대 등으로 일부 경쟁력이 취약한 사업자는 경영애로 가능성

1

서비스 개방의 전반적인 효과

* 11개 국책연구기관 「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」 ('07.4.30)

□ 고용증대

- 한미 FTA는 서비스 부문의 취업자를 장기적으로 약 27만명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
- * 한미 FTA 이행에 따른 효과가 향후 10년간 경제에 반영된다고 가정할 경우 연평균 약 2.7만명 증가
- 단기적으로는 교역증대 등으로 취업자가 약 7만명이 증가하고, 장기적으로 자본축적 및 생산성 향상을 통해 약 27만명 증가

□ 소비자 잉여 및 제조업 생산성 증대

- 방송·통신 등의 서비스 시장 개방으로 경쟁이 촉진됨에 따라, 서비스의 질 제고, 선택권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 잉여 증대
- 또한, 법률, 회계, 금융 등 사업관련 서비스는 제조업 생산에 중간재로 사용되므로, 해당 서비스 자유화는 제조업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주고 경제 전반의 효율성 향상에도 기여

□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촉진

- 네거티브(Negative) 리스트 방식의 유보안을 채택하여 서비스 자유화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**외국인의 對한국 투자리스크를 감소시켜 서비스 교역 및 투자 촉진 기대**

2 분야별 영향

* 11개 국책연구기관 「한미 FTA 경제적 효과분석」 ('07.4.30)

1 지적재산권

- 지적재산권 보호기간 연장에 따라 해외 저작권자에게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저작권료가 향후 20년간 연평균 71억원 수준
-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캐릭터 저작물로 연평균 49억원의 저작권료를 추가 지불할 것으로 예상

2 방송서비스

- (PP 시장 개방) 시장확대 등으로 향후 15년간 PP시장 매출액은 연평균 329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
 - 다만, 해외 사업자의 국내시장 진출증가로 해외 PP 사업자의 시장 점유율이 확대되어 국내콘텐츠 제작시장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
 - 시장개방으로 해외 PP의 국내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영화, 스포츠, 애니메이션, 다큐멘터리* 분야임
- * '05년 국내 PP 시장에서 4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3%
- (방송쿼터 축소) 영화·애니메이션 산업의 소득 감소규모는 향후 15년간 연평균 26.9억원 수준으로 예상

③ 통신서비스

- 외국인의 진입확대로 국내 시장규모 확대, 요금인하, 소비자 선택기회의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다만, 외국계 기업의 시장점유율 확대, 배당이익 해외이전 증가 등의 영향도 예상

④ 금융 및 전문직 서비스 분야

- 외국금융기관·법률회사의 진출 확대로 기업에 대한 금융·법무 등 지원서비스 수준이 높아지면서 기업의 경쟁력 제고
- 전문직 서비스의 경우 외국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다양한 형태의 협업관계를 통해 국내 기업이 세계적 네트워크에 통합되는 효과 기대
- 외국 금융기관의 현지법인 및 지점 설립, 미국 로펌 진출 등으로 고급 전문인력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
- 다만, 국내 법무·회계법인이 영세하므로 대형화·전문화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외국법인에 의한 국내시장 잠식 우려도 존재

< 5대 로펌 변호사 규모 비교 > (단위: 명)

순위	전 세계		한 국	
1	Baker&Mckenzie(미)	2,975	김&장	280
2	Clifford Chance(영)	2,432	태평양	145
3	Jones Day(미)	2,178	광장	142
4	Linklaters(영)	2,072	화우	139
5	Freshfield Bruckhause Deringer(영)	2,013	세종	129

주) 대한변협신문 182호 ('07.4.9)

Ⅲ. 서비스산업 보완대책 및 경쟁력 강화방안

< 기본방향 >

- ◇ 한미 FTA 타결에 따라 개방되는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보완대책을 추진
 - 아울러 한미 FTA를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

1

기본구조

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시스템 선진화

I. 협상내용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

- ◆ FTA 이행을 위한 법률 정비
- ◆ 피해지원 대책
 - 무역조정지원제도
 - 근로자 고용안정 강화
 - 중소기업 지원대책
- ◆ 개방 분야별 보완대책

II.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

- ◆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
- ◆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
- ◆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
- ◆ 금융허브 구축을 위한 제도혁신

2

협상내용에 따른 보완대책

가. FTA 이행을 위한 법률 정비

□ 한미 FTA 이행법률의 조기 국회제출

- 원활한 한미 FTA 협정 이행 및 국내보완대책 추진 등을 위해 저작권법, 무역조정지원법 등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
 - * 정부의 조사결과 7월 현재 제·개정이 필요한 법률수는 26건
 - 국회에서 적기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각 부처소관의 이행법률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회에 제출

나. 피해지원 대책

① FTA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업 범위 확대 개편

- 무역조정지원 대상 서비스 업종을 현행 '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(51개)'에서 '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종 전체'로 확대
 - *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 개정
 - 다만, 공공 서비스·오락 서비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
- 현재는 FTA로 인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25% 감소할 경우 무역피해기업 지정을 통해 구조조정자금 융자 등 지원
 -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동 기준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점유율, 영업이익 등 피해지표 및 인과관계 판정 기준도 고려

※ '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' 개정 추진상황

- 한미 FTA의 국회비준과 함께 무역조정지원법도 개정·시행될 수 있도록 개정절차 추진중 (정기국회 상정예정)
- 현재 입법예고(6.1일~6.20일)후 법제처 심사중

②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강화

- 전직지원제도를 활성화*하여 고용안정 대책 확충
 - * 현재 사업주에게 전직지원 비용의 일부(2/3~3/4)를 지원하는 것을 전액 지원하도록 확대
- 지역별 수요에 맞는 **훈련과정 공모제*** 도입, 훈련비용을 사전지원하는 **훈련 바우처제 확대** 등 훈련지원체계 개선
 - * (예) 서울 디지털 콘텐츠, 경남 조선 특수용접, 대구·경북 패션어패럴 등
- **훈련연장급여** 지원을 통해 훈련기간중 생활안정지원 강화
 - **무역조정기업 등 소속 근로자가 훈련연장급여 프로그램***을 신청할 경우 지원대상자로 **우선 선정**
 - * 실업급여기간 종료 이후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최대 2년간 지급
 - **훈련연장급여 지급수준을 상향조정**(현재 구직급여의 70%)

③ 중소기업 지원대책

- 외부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**경쟁력이 약화된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전환촉진제도***를 통해 지원
 - * 지원 대상 : 제조업·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 - 지원 내용 : 사업전환자금 융자, 컨설팅, 유희설비 매각 알선 등
 - 지원 자원 : '07년 1천억원
- FTA 관련 정보제공, 기업 컨설팅 및 맞춤형 지원조치 등을 통합 제공할 수 있는 **원스톱 지원체제 구축**
- 미연방정부 조달 등 신규 유망 틈새시장 진출을 위해 **해외마케팅 지원 강화**
 - * 현행 40여회의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을 '09년까지 75회 이상 확대추진

다. 개방 분야별 보완대책

1] 지적재산권 및 문화서비스

- (지적재산권) 캐릭터 및 우수도서 지원을 확대
- (영화)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안정적 영화 제작환경 조성
- (애니메이션) 단편 애니메이션 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강화

⇒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관광부에서 별도 보고

2] 통신 서비스

- 통신시장의 경쟁능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통신규제를 완화
- 선발사업자(KT, SKT)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재판매 의무화 방안 등 검토

⇒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에서 별도 보고

3] 방송 서비스

- 국내 콘텐츠 제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디지털 방송콘텐츠 제작센터 건립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 검토
- PP와 독립제작사 등에 대한 방송콘텐츠 제작비 직접지원 ('07년 135억원) 확대 및 제작비 용자('07년, 25억원)제도 개선
 - 사업자의 무형자산을 평가·보증하는 기술보증기금의 '기술 평가보증제도' 도입 추진('07년)
 - 용자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간접투자 방식의 투자 조합 설립 방안 검토('08년)
- FTA 틀내에서의 공동제작협정에 따라 공동제작물의 국내물 인정규제 완화 및 보조금 지급을 통한 해외공동제작 활성화

- FTA체결국가를 대상으로 방송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지원('08~'12년)
- * 이미 공동제작협정이 있는 한-EFTA 4개국 이외에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-아세안 10개국, 한-EU 등으로 대상국가 확대추진
- 방송통신 융합 및 디지털 방송환경에 대비하여 **방송영상 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규학위과정을 운영**
- 실습교육 내실화를 위해 장비구입비 및 실습교과목 개발 지원

4] 전문직 서비스

법 률

- 외국로펌에 대한 **관리·감독 시스템 마련**(외국법자문사법 '07년 정기국회 제출)
- 법무법인이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**세부담을 경감하여 대형화·전문화를 유도하고 개방화 대응능력을 지원**
- 기존법인을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해 **법인세·소득세를 비과세**
- 법무법인의 **분사무소 설치기준을 완화***하고 **국내로펌의 중국·베트남 등 해외진출을 지원**
- *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설치금지→1개소 설치허용

회 계

- 개방을 통한 회계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**공인회계사법 등 국내 회계 관련 제반 규정 정비**
- 국내 출자허용으로 국내 회계법인에 진출할 **미국 공인 회계사를 효과적으로 관리·감독할 제도 마련**('08년)
- 모든 상장기업에 대해 **국제회계기준을 전면도입**('11년)

3**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대책****① 관광·레저 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**

- 골프, 요트 등 소비 고급화 추세에 적합한 레포츠 산업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해양레저 스포츠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* 추진
 - * 해양레저선박의 항행구역 제한완화, 국내기항 크루즈선의 항만 시설 사용료 감면 등
-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시설 공사비 보조 등 국내관광 촉진을 위한 정책적 지원수단 확충

②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강화**IT 기술의 경영활용도 제고**

- (제도정비) 업종간 융합 분야*에 대한 규제정비 및 표준제정 등을 통해 관련 서비스의 도입을 촉진하고 호환성을 강화
 - * IPTV, u-City건설, 교통카드 등
- (인프라 구축) RFID/USN 핵심분야(유통물류, 농수산 기상, 안전관리 등)에 대한 부처간 공동사업 추진('08) 및 표준가이드라인 개발·배포
- (인센티브 확대) RFID 도입 등 IT 활용 기업에 대해 세제금융 지원, 공공부문 조달심사 항목에 IT 등 생산성향상 투자를 추가

R&D 투자확대 촉진

-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기술개발 지원 추진('07년 50억원)
 - * 중기청의 기술혁신사업('06년 1,310억원)은 대부분 중소제조업체 위주로 지원되었으나 향후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
- 디자인, 소프트웨어, 디지털콘텐츠 등 분야별 R&D 지원확대

직업능력개발 확대

- 개별 업체는 인력·전문성 부족으로 자체 교육실시 능력이 부족하므로 **업종별 단체 주관의 직업능력개발을 실시***

* 회원 기업의 수요를 집약하여 교육훈련 제공시 고용 보험에서 지원 (사업주 위탁훈련 방식)

- 디자인, 방송, 디지털콘텐츠 등 **업종별 전문인력 양성 확대**

③ 서비스산업 경영환경 개선 지속

- 성장잠재력 확충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전시, 패키징, 이러닝 등 **신규 유망업종을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**

- 서비스업 관련 **불필요한 규제*의 지속적 개선**

* 방송광고 사전심의제도 폐지, 문화콘텐츠에 대한 무역 금융지원 등

④ 금융허브 조기구축을 위한 지원 및 제도혁신 추진

- 규제혁신을 통한 **금융업권별 금융회사의 역량강화**

- (투자은행 육성) 금융투자업간 경영확대를 통한 대형화·겸업화 유도, 금융투자회사간 M&A시 세제혜택 등 지원검토

- (은행 선진화) 파생상품 취급범위를 확대하여 리스크를 활용하는 IB업무 활성화, 투자자문·일임업 등 겸영·부수업무를 확대하여 다양한 수익모델 발전 촉진

- (보험사 육성) 현행 지배주주 요건 등을 완화하여 보험회사 M&A 활성화 등 대형화 촉진 유도

- 제도혁신을 통한 **자산운용시장의 경쟁력 강화**

- 최소자본금 등 진입규제 완화, 회사채시장 활성화로 국제 위주로 구성된 채권시장의 균형발전 추구

I. 추진배경

1. 필요성

- 정부는 '03년이래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제조업에 비해 차별적이거나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추진해 왔으며
 - 특히, '06.12월에는 관광·레저, 교육·의료 서비스의 제도적 기반구축을 위한 1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였고, 분기별로 진행상황을 점검

< 1단계 종합대책 주요 추진실적 >

- ◆ (경영환경개선) 유통단지내 물류시설·관광호텔에 대한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, 문화접대비 도입('07.9~'08), 외국인관광객의 호텔 숙박요금 부가가치 영세율 적용('07.7~'08) 등
- ◆ (관광·레저) 한국형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 사업(베니키아 출범), 중국인 복수사증 발급확대, 박물관등 문화시설 개장시간 연장 등
- ◆ (교육·의료)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, 의료법인 수익사업 허용등 의료제도 개선(국회계류중), 제주도 영어타운 건설(구체적 추진 방안 마련중)

- 이같은 정책적 노력의 결과, 지식기반서비스 업종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, 서비스 수지 적자는 지속
 - 서비스산업내 부가가치와 고용 구조도 고부가가치 산업인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체질개선이 이루어지는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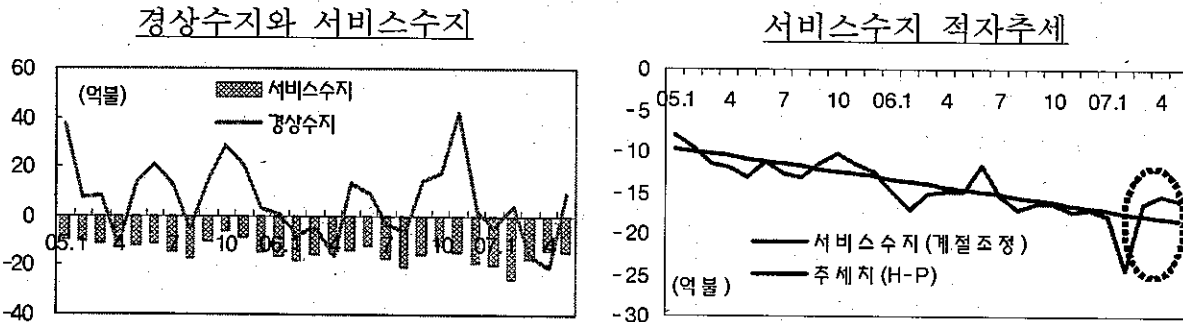
서비스산업의 GDP·고용비중 변화('03년 전후 비교)

	명목부가가치		고용	
	'99~'02 평균	'03~'06 평균	'00~'02 평균	'03~'06 평균
지식기반서비스업	44.9%	48.0%	31.3%	35.1%
전통서비스업*	55.1%	52.0%	68.7%	64.9%

* 도소매, 음식·숙박 등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제외한 기타 서비스업

○ 최근('07.1/4분기) 서비스수지 적자폭도 다소 완화

- 환율하락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수지가 다소 개선된 것은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대책 효과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평가



○ 또한, 미국 PwC는 한국의 서비스산업을 20개 신흥경제국중 세번째로 투자전망이 밝은 것으로 평가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

* PwC(Pricewaterhouse Coopers)는 내수시장 규모, 법인세율 등을 기준으로 서비스산업 비즈니스 환경을 평가('07.7.8, 1위 UAE, 2위 사우디아라비아, 3위 한국 등)

□ 그러나, 그간의 각종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, 서비스 수지적자 지속, 낮은 생산성 등 아직은 선진국에 비해 경쟁력이 미흡한 상황

-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
- 또한, 한미 FTA 등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'제조업의 반도체'와 같은 대표 업종의 육성 노력과 함께 신규 유망서비스 업종의 산업적 육성 노력을 지속할 필요

⇒ 이러한 기본 인식아래, 현장 방문·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당면 문제점을 파악하고, 이의 개선을 위해 「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」을 마련

2. 현황 및 당면 문제점

가. 현황

① (고용·GDP) 서비스산업의 고용·GDP 비중이 지속 증가하면서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중

- '06년 서비스산업 고용비중은 '90년에 비해 19%p 증가하였고, GDP 비중도 '90년에 비해 7.7%p 증가

서비스업 및 제조업의 고용·GDP 비중(%)

		1990	1995	2000	2006
고용	서비스업	47.1	55.1	61.6	66.0
	제조업	27.2	23.6	20.3	18.0
GDP	서비스업	49.5	51.4	54.4	57.2
	제조업	27.3	27.6	29.4	27.8

- 그러나, 아직도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용·GDP 비중은 OECD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

* 고용 비중('05, %) : 미국 78.6, 영국 76.5, OECD 평균 69.4, 한국 65.2
 GDP 비중('04, %) : 미국 76.7, 영국 74.7, OECD 평균 68.7, 한국 55.6

② (서비스 수지) 서비스수지 적자는 '03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관광·교육서비스 등 여행 수지가 적자의 상당부분을 차지

* 서비스수지(억불) : '03 △74.2 → '04 △80.5 → '05 △136.6 → '06 △187.6
 여행수지(억불) : '03 △47.7 → '04 △62.7 → '05 △95.9 → '06 △129.2

③ (생산성)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미국 등 OECD 선진국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

* 생산성('04): 한국 100, 미국 252.2, 영국 154.6, 프랑스 197.8, 일본 187.6

- '06년 서비스업의 1인당 부가가치 창출액은 2,821만원으로 제조업(5,036만원)의 56% 수준

나. 당면 문제점

① (해외 관광소비 확대) 관광시설 낙후 등 약화된 국내관광 경쟁력에 환율하락 등이 겹쳐 해외관광 소비 증가세 지속

- * '06년 관광수지 적자는 84.8억불로서 '04년(△38억불)에 비해 약 2.2배 증가
- '07.1/4분기 민간소비는 4.1% 증가한 반면, 국내가계의 해외소비 지출액 15.5% 증가(한국은행)

○ 인접 경쟁국들은 저가로 골프관광객을 유치하나 우리는 강한 입지규제, 필요이상의 시설의무화 등 고비용구조 상존

- * '06년 해외 골프관광객 64.5만명, 관련 경비로 연간 1.1조원 지출(추정)

○ 소득증가에 따른 소비성향 변화에도 불구하고, 요트·크루즈 등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고급 레포츠산업 인프라 부족

② (낮은 생산성) IT 기술활용도 미흡, R&D 투자부족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저하

○ 정보분석처리 등 IT 분야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나, IT 활용도 제고에 필요한 인프라가 미흡

○ OECD 국가전체의 민간 R&D 투자대비 서비스 R&D 투자 비중*이 평균 23.7%인 반면, 우리는 6.9% 수준에 불과

- * OECD평균 23.7, 미국 36.1, 영국 21.1, 핀란드 14.5, 일본 9.1 한국 6.9 ('04)

- 서비스기업은 사업규모의 영세성으로 R&D투자에 대한 관심과 여력이 부족하고, 정부 R&D 투자도 제조업 분야에 집중

③ (열악한 경영환경) 성장잠재력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하나,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제도적 뒷받침 부족

◇ 이러한 문제점 해소를 위해 서비스 수지적자 해소 및 생산성 제고 대책, 주요업종의 전략적 육성 등이 필요

Ⅱ. 2단계 대책의 주요내용과 특징

1. 주요내용

- ① 관광레저분야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촉진
 - 현재의 반값 수준에 이용가능한 대중 골프장을 공급하여 해외 골프소비의 국내전환을 유도
 - 소비 고급화 추세에 부응하여 요트·크루즈 등 고급 해양 레저산업 육성기반 마련
- ② 서비스산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
 - RFID/USN 등 첨단 IT 기술의 산업활용도 제고
 - 개인정보·저작권 보호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IT 활용 확산 기반마련
 - 업종별 표준모델 개발보급 등 인프라 구축지원과 세제·금융 지원 강화를 통해 IT 투자확대 유도
 - R&D 세액공제 위탁대상 확대 등을 통해 R&D 투자촉진을 유도하고 R&D 투자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
 - 수요자 맞춤형 전문인력양성 등 직업능력개발 확대
- ③ 서비스산업 경영환경개선
 - '06.12월 1단계 대책에 이어, 시장개방에 대비 방송문화 등 주요 지식기반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와
 - 패키징, 이러닝, 컨설팅, 시험·분석 등 유망업종의 산업적 육성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
 - 아울러 관광단지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 보조, 문화콘텐츠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

2. 특징

- ① 관광·레저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대책들이 주로 규제 개선·세제지원 등 제도적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다면,
 - 2단계 대책은 그간 대책들의 효과가 보다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렴한 골프장 건설 등 project로 구체화하는데 중점
 - 아울러, 다양화·고급화되고 있는 관광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요트·크루즈 등 고급 레저산업의 육성방안도 마련
- ② 그간 업종별 경쟁력강화대책에 병행하여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능적 접근을 추가
 - 금번에는 IT활용을 제약하는 요인을 보다 in-depth하게 발굴하여 IT 기술이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되도록 세제·금융 등 인센티브 강화와 IT 투자확대를 유도
 - 생산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R&D 투자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 분야에 집중되었던 R&D 지원이 서비스 산업에도 균형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
 - * EU Innova(EU산하 전문가그룹)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해 R&D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R&D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을 제안
- ③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, 방송문화 등 주요 지식기반 서비스 업종의 경쟁력 강화추진과 함께
 - 성장잠재력이 높고 고부가가치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신규 유망서비스 업종의 발굴·육성 노력 지속
 - 지역순회설명회* 개최 등을 통해 건의된 관광·레저·문화 분야 등의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노력도 지속 추진
 - * '07.1.14~2.14기간중 16개 지자체 공무원, 업계 관계자 등 1,2천명 참석